

# 전남도, 청년 불잡기 안간힘

4552억 규모 2019 청년정책 마련…75개 사업

창업 활성화·선도인력 양성 등 6개 분야 확정

전남도가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전남'을 목표로 4552억 원 규모의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병호 행정부지사, 청년관계 전문가, 청년활동가, 도청 내 청년업무 관계 부서장 등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책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 일자리·창업 활성화, 지역산업 선도인력 양성, 지립 지원과 복지 향상, 미래 청년 꿈사다리 제공 등 6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사업예산 가운데 지역산업 선도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업 분야에 85%, 청년 지원과 복지 향상에 12%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년시책 8개 사업을 종료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2040세대 희망디딤공

간 조성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전남에서 먼저 살이보기 등 13개 사업이다.

올해 신규시책 사업은 2018년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와 청년들의 제안을 수렴해 대폭 반영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청년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말해주는 기준"이라며 "청년이 전남에서 일자리를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당당하게 도전하는 청년을 돋는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광주시 시민권익위·시의회, 집단민원 주민 직접 만나

단지 준공업지역을 직접 방문해 '2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명태)는 25일, 시민들의 집단 민원을 논의하기 위해 광산구 평동 1차 산업

단지 준공업지역을 직접 방문해 '2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고객 최우선 가치 실현 할 것”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취임

제12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장에 박종호 본사 기술안전사 업단장이 25일 취임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뚜렷한 목표설정을 통해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섬기는 지역본부를 만들겠다”며

'찾아보자·생각하자·행동하자'를 업무개선 3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비우세요·놓으세요·낮추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3세요 운동 실천을 통해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섬기는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안군 출신의 신임 박 본부장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

업하고 토목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 공사에 입사해 무안신안지사장과 영산강사업단장을 거쳐 기술 안전품질원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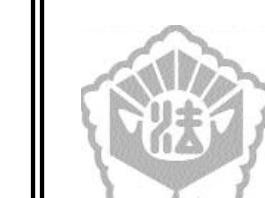
지난 2004년에는 국가 품질명장에 선정된 이어 전국품질 분인조 경진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17회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신안현장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서은홍 기자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서동욱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잘 활용하면 노령층이 많은 우리 지역을 공동체가 숨 쉬는 화목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장과 정종복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장, 윤종철 한전KDN 사회기자팀장, 마영식 공간디자인 대표, 김석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희필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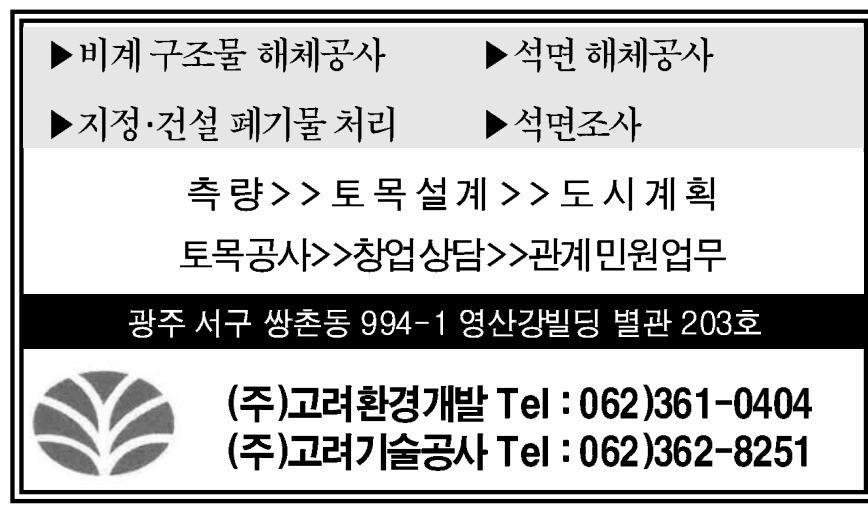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 해체공사  
▶ 석면조사

측량>>토목 설계>>도시 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사회적 경제기업 체계적 지원·물품구매 확대돼야”

### 서동욱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서동욱 의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가치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물품구매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도의회 초의 실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균)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국내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술기업, 자활기업 등 1만5천여 개가 설립돼 운동중이다. 전남에는 1천87개가 설립돼 있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많은 애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구매관계자, 전남도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하는 등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매칭과 정보제공이 원활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대한 실적 보고와 수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영세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종합상사 설치를 유도해 공공구매 미케팅 및 민간기업 납품을 적극 유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서동욱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잘 활용하면 노령층이 많은 우리 지역을 공동체가 숨 쉬는 화목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장과 정종복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장, 윤종철 한전KDN 사회기자팀장, 마영식 공간디자인 대표, 김석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희필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동구, 사회책임지수 최우수상 수상

광주 동구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CSR연구소와 국회CSR정책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사회책임지수 평가는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단은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 4개 부문으로 나눠 지자체의 사회책임 일행수준,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해 지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 서구, 희망플러스 책상없는 아이 0% 만들기 협약

광주 서구가 25일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플러스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책상없는 아이 0% 만들기 사업은 책상 없이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책상 및 의자세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서구청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밝은안과 병원이 참여, 사업추진 및 후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민을 위한 개인수술, 서구민 한가족:1결연사업 등 100여 가지 협약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밝은안과 병원, 윤길중 대표원장을 이날 아이들의 책상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후원했다.

## 남구, 민원인 난동 대응 스마트 IoT 비상벨 구축

광주 남구는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에 따른 폭행 등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 민원 부서 및 통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 IoT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동행정복지센터 안전 환경 조성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최첨단 지능형 IoT 기술을 활용한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IoT 비상벨은 직원들이 위험 상황 발생을 인지할 경우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비상벨을 터치하면 경찰서 112 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임방향으로 즉각 상황이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급습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비상 상황인을 알리는 빨간색 경광등이 경고음 소리와 함께 작동하며,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담당자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피커를 통해 유선으로 초동 대처법을 알리는 지원 기능도 담겨 있다.

##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 개소

광주 북구가 차별 없는 초등돌봄 실천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오는 28일 연제동에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을 개소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최초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사업 확대에 따라 2018년 광주광역시 다함께돌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설 설치비 5천만 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았다.

이에 북구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8년까지 10년 간 무상사용 협약을 하고 지난 1월 시설 기능보강을 완료했다.

##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참여의날 행사

23일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소장 박상희)가 수완호수공원에서 풍영정천사랑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원봉사로 만드는 안녕 광산을 주제로 ‘자원봉사 참여의 날 V-Day’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여러 단체가 동시에 별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시민참여를 확산하는 내용.

행사 참여자들은 ‘2019 V-Day 선포식’을 가진 뒤 새봄맞이 풍영정천 청결 운동 일상 속 작은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형택 기자

##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